



Peace BAR Festival

제44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Peace BAR Festival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

The Moment of Chaos: Planetary Consciousness and Future Politics

2025

2025년 9월 19일(금)~20일(토)

경희학원

경희학원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경희학원의 운영 기조입니다. 설립 정신 “문화세계의 창조”와 “학문과 평화”의 전통 위에 더 나은 인류의 미래, 문명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원 산하에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의료원(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고등학교, 경희여자고등학교, 경희중학교, 경희여자중학교, 경희초등학교, 경희유치원이 있습니다.

취지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

경희학원은 1981년 유엔 세계평화의 날 제정 이래, “학문과 평화”를 지향하는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Peace BAR Festival(PBF)>을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 제44회를 맞아,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를 주제로 인류사회가 직면한 문명사적 위기와 전환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지구사회는 지금 전례 없는 혼돈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생명의 기반을 흔들고, 혼돈의 국제정세는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급진전과 지구 산업 문명의 확산은 유례없는 삶의 편익을 가져왔지만, 그 이면에선 지구상 모든 존재의 운명을 가를 실존적 위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문명사적 혼돈 앞에 우리는 이제 물어야 합니다. 인류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의식과 상상의 지평 위에, 지구적 실천의 활로를 열어갈 것인가?

문명사적 난제와 기회가 촘촘히 엮인 초연결의 인류사회, ‘행성 의식(planetary consciousness)’은 논의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문명과 우주를 잇는 종합적·전일적 사유는 복합 위기, 문명사적 중층 위기를 헤쳐가는 데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안입니다. 이번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PBF>는 유례없는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민 의식과 지구정치의 활로 찾아 나서는 논의의 장을 마련합니다.

경희학원은 ‘학문과 평화’의 가치를 구현해 온 종합 학술·교육 기관입니다. 이번 행사가 인류와 미래세대의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성찰과 모색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귀하를 PBF 2025에 초대합니다.

혼돈의 순간, 새로운 평화의 길을 찾아 나섭니다.

세계평화의 날 제정 배경

세계평화의 날과 해는 1981년 유엔이 제정하면서 정례화됐습니다. 1981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IAUP) 제6차 총회에서 경희의 설립자가 유엔에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IAUP는 이같은 내용의 코스타리카 결의문을 채택해 유엔에 전달했고, 유엔은 그해 11월 30일 개최된 제36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세계평화의 날과 해(International Day of Peace, International Year of Peace)를 제정합니다.

당시 유엔총회 결의문(Resolution 36/67)에는 세계평화의 날은 “모든 국가와 시민이 평화의 이상(理想)을 기념하고, 고양하고자” 제정했고, “모든 유엔 회원국, 산하기관과 기구, 지역기구, NGO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유엔과의 협력하에, 특히 교육적 수단을 통해 세계평화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권유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유엔은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2001년부터 매년 9월 21일)로,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제정했습니다.

냉전체제 완화가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IAUP의 생각은 시의적절했습니다.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안할 무렵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동서 양 진영은 세계평화의 해가 공표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1986년 1월 1일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신년 평화 메시지(New Year's Messages of President Reagan and General Secretary Gorbachev, January 1, 1986)를 교환하면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양국이 추진해오던 군축회담도 진행하면서 인류는 평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핵무기 감축안이 마련되고 지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냉전체제의 긴장이 완화됐습니다.

프로그램

- 주제**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
The Moment of Chaos: Planetary Consciousness and Future Politics
- 일시** 2025년 9월 19일(금) ~ 20일(토)
세계평화주간 2025년 9월 15일(월) ~ 20일(토)
- 장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서울·국제 캠퍼스 일원, 실시간 웹캐스트(pbf.khu.ac.kr)

제44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9월 19일(금) 09:30 ~ 10:20	개회	김현 경희학원 사무총장
	세계평화의 날 제정 경과보고	김원수 경희학원 미원평화학술원 상임고문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기념사	혼돈의 순간: 전일적 실존의 활로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기조연설	글로벌 사회에서 행성 사회로: 미래 문명의 새 항로를 찾아 나오미 오레스케스 하버드대학교 과학사학과 석좌교수
	기념음악 상영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제4악장 알레그로 콘 포코(드보르자크 작곡, 빈 필하모닉 연주)
특별대담 9월 19일(금) 10:20 ~ 12:10	주제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활로
	사회	송재룡 경희대학교 전)대학원장, 경희대학교 사회학 특임교수
	패널	나오미 오레스케스 하버드대학교 과학사학과 석좌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국제정치학과 석좌교수, 경희대학교 ES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기념음악 공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 원작, 김효근 작곡) 〈목련화〉 (조영식 작사, 김동진 작곡)

하벨 다이얼로그 9월 19일(금) 13:00~14:50	주제 시민적 가치와 참여, 하벨 정신의 재조명		
	사회	이택광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교수
	패널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 신임 관장
		마틴 리터	체코고등학술원 철학연구소 부소장
		박영신	전)경희학원 교황석좌
		신진숙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부원장
라운드테이블 9월 19일(금) 15:00~17:00	주제 돌파 혹은 봉과: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향해		
	사회	김원수	경희학원 미원평화학술원 상임고문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패널	기조 패널	그로 할렘 브룬틀란드 노르웨이 최초 여성 총리 <i>The Elders</i> 창립 멤버
			폴 쉬리바스타바 로마클럽 공동회장
	패널 (알파벳순)	요코이 아츠후미	오카야마대학교 부총장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연구 및 교육 석좌
		앨리스테어 페르니	<i>The Elders</i> CEO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 신임 관장
		조르지 스자보	전)라즐로 연구소 사무총장 유비쿼터대학교 대학원장
		영상메세지	
		마허 나세르	유엔 사무차장보
		미리안 빌렐라	Earth Charter International 사무총장

프로그램

시민사회·학생 기념행사 9월 20일(토) 08:30~11:30	주제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지금 행동: 지구 열대화 시대에 평화를 재정의하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다	
	사회	케케산 바수	환경 및 인권 운동가 Green Hope Foundation 회장
	패널	이은지, 박주미, 강미영	KUSA 회원
콜로키엄 9월 20일(토) 12:30~14:10		한준서, 김아림, 정도희	UNSA-ROK 회원
		최민준, 전아현, 이채홍	UNAI ASPIRE KOREA 회원
		이준호, 이윤서	
청년 평화포럼 9월 20일(토) 14:20~17:40	주제	기후 정의, 세대 간 정의: 행성 시민으로 가는 길	
	사회	박정원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교수
	패널	서재영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연구교수 및 선임연구원
		이우균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회장
		이명현	과학 책방 갈다 대표
		신충식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부원장
		김현중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
		황주격	UNSA-ROK 회원
	주제	기후 정의, 세대 간 정의: 국가는 기후대응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연사	박수연	환경부 환경교육팀 전문위원
		오형나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제44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세계평화의 날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장 근원적 가치인 평화를 되새기고, 그 의미를 성찰하는 자리입니다.

경희는 유엔 세계평화의 날 제정 이래 매년, 학문과 평화를 잇는 공론의 장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기후위기, 핵전쟁, 기술문명의 불확실성 등 실존의 토대가 흔들리는 시대적 혼돈 속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의식과 실천이 이 전환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과 함께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은 “혼돈의 순간: 전일적 실존의 활로”라는 기념사를 통해 오늘의 위기와 내일의 가능성을 성찰하고, 평화를 향한 새로운 사유를 제안합니다.

기조연설은 하버드대학교 나옴 오레스케스 교수가 맡아, “글로벌 사회에서 행성 사회로: 미래 문명의 새 항로를 찾아”라는 주제로, 오늘의 위기를 넘어서는 행성적 전환과 문명의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제44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은, 혼돈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평화와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9월 19일(금) 09:30~10:20	개회	김현 경희학원 사무총장
	세계평화의 날 제정 경과보고	김원수 경희학원 미원평화학술원 상임고문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기념사	혼돈의 순간: 전일적 실존의 활로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기조연설	글로벌 사회에서 행성 사회로: 미래 문명의 새 항로를 찾아 나옴 오레스케스 하버드대학교 과학사학과 석좌교수
	기념음악 상영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제4악장 알레그로 콘 포코(드보르자크 작곡, 빈 필하모닉 연주)

특별대담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활로

The Moment of Chaos, The Future of Planetary Politics

특별 대담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문명사적 혼돈을 넘어, 미래 정치와 시민 의식, 문명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위기의 진단을 넘어, 우리는 '어떤 문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그 근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출발점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이 대담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래 문명을 이끌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과 시민적 실천, 그리고 인류 공동의 '행성 의식'을 함께 사유하고자 합니다. 전환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사유하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를 묻는 논의의 장입니다.

문명의 전환을 위한 문제 진단을 넘어 실천의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 행성 문명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사유와 토론의 시간을 마련합니다.

9월 19일(금) 10:20~12:10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활로		
	사회	송재룡	경희대학교 전)대학원장, 경희대학교 사회학 특임교수
	패널	나오미 오레스케스	하버드대학교 과학사학과 석좌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국제정치학과 석좌교수, 경희대학교 ES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기념음악 공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 원작, 김효근 작곡) 〈목련화〉 (조영식 작사, 김동진 작곡)	

연사 및 사회자



나오미 오레스케스

Naomi Oreskes

하버드대학교 과학사학과 석좌교수



존 아이켄베리

G. John Ikenberry

프린스턴대학교 국제정치학과 석좌교수, 경희대학교 ES



조인원

Inwon Choue

경희학원 이사장



송재룡

Francis Jae-ryong Song

경희대학교 전)대학원장, 경희대학교 사회학 특임교수

하벨 다이얼로그

시민적 가치와 참여, 하벨 정신의 재조명

Revisiting the Havel Spirit for Civic Values and Engagement

하벨 다이얼로그는 체코 민주화의 상징이자, '진실 속에 살기(Living in Truth)'라는 윤리적 실천을 통해 전체주의에 맞섰던 바츨라프 하벨의 사유와 정신을 오늘 다시 조명하는 대화의 자리입니다.

경희대학교는 2015년, 하벨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추서하며 그의 도덕적 정치철학과 시민윤리를 기리는 원탁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오늘, 더 복잡해진 세계와 더 깊어진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벨을 호출합니다.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로 기획된 하벨 다이얼로그는 하벨과 함께, 진실과 양심, 책임과 희망이라는 시민적 가치가 어떻게 다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합니다.

9월 19일(금) 13:00~14:50	시민적 가치와 참여, 하벨 정신의 재조명		
	사회	이택광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교수
	패널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 신임 관장
		마틴 리터	체코고등학술원 철학연구소 부소장
		박영신	전)경희학원 고황석좌
		신진숙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부원장

연사 및 사회자



토마시 세들라체크

Tomáš Sedláček

하벨도서관 신임 관장



마틴 리터

Martin Ritter

체코고등학술원 철학연구소 부소장



박영신

Yong Shin Park

전)경희학원 교황석좌



신진숙

Shin Jin-sook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부원장



이택광

Alex Taek-Gwang Lee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교수

라운드테이블

돌파 혹은 붕괴: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향배

Breakthrough or Breakdown: Planetary Consciousness and Transformative Politics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문명 전환의 기로에 선 오늘, 인류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를 묻는 자리입니다. 기후, 핵, 인공지능 등 문명사적 중층 위기 속에서 우리는 개인과 집단,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 공동 의식에 기초한 행성 의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미래정치와 시민적 실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논의는 위기 진단을 넘어, 지구 행성 공동체에 관한 무한 연결과 공동 책임 의식 아래 새로운 지구적 연대를 구상하는 첫걸음입니다. 경희학원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발표 예정인 미래세대를 향한 오픈 레터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국제적 실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계평화가 실현된 지구 행성 사회. 이를 위한 전환은 인류 공동의 책임입니다.

9월 19일(금) 15:00~17:00	돌파 혹은 붕괴: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향배			
	사회	김원수	경희학원 미원평화학술원 상임고문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패널	기조 패널	그로 할렘 브룬틀란드	노르웨이 최초 여성 총리 <i>The Elders</i> 창립 멤버
			폴 쉬리바스타바	로마클럽 공동회장
	패널 (알파벳순)	요코이 아츠후미	오카야마대학교 부총장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연구 및 교육 석좌	
		앨리스테어 페르니	<i>The Elders</i> CEO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 신임 관장	
		조르지 스자보	전)라즐로 연구소 사무총장 유비쿼터대학교 대학원장	
		영상메세지		
		마허 나세르	유엔 사무차장보	
		미리안 빌렐라	Earth Charter International 사무총장	

연사 및 사회자



그로 할렘 브룬틀란드

Gro Harlem Brundtland

노르웨이 최초 여성 총리
The Elders 창립 멤버



폴 쉬리바스타바

Paul Shrivastava

로마클럽 공동회장



요코이 아츠후미

YOKOI Atsufumi

오카야마대학교 부총장,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연구 및 교육 석좌



앨리스테어 페르니

Alistair Fernie

The Elders CEO



토마시 세들라체크

Tomáš Sedláček

하벨도서관 신임 관장



조르지 스자보

Györgyi Szabó

전)라즐로 연구소 사무총장
유비쿼티대학교 대학원장



마허 나세르

Maher Nasser

유엔 사무차장보

영상메세지



미리안 빌렐라

Mirian Vilela

Earth Charter International

사무총장 영상메세지



김원수

Kim Won-soo

경희학원 미원평화학술원 상임고문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콜로키엄

기후 정의, 세대 간 정의: 행성 시민으로 가는 길

Climate Justice and Intergenerational Justice:
A Road Toward Planetary Citizenship

오늘날 인류는 지구 공동체의 공존이 위협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시민 연대를 다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콜로키엄 “기후 정의, 세대 간 정의: 행성 시민으로 가는 길”은 기존의 ‘지구화(Globalization)’와 구별되는 ‘행성 사회(Planetary Society)’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행성 사회란 단순한 경제적 지구화나 국가 중심의 국제질서를 넘어, 우리가 하나의 행성에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행성적 책임’과 ‘행성 시민권’의 새로운 개념을 구상하는 사회입니다. 이번 논의는 국가와 로컬 단위에 머물지 않고, 인류 모두가 공유해야 할 미래 의식을 토대로 행성 사회의 가치와 실천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콜로키엄은 세계평화의 날 기념 행사로서, 종교, 과학, 시민사회,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전문가와 청년세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시민성,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를 향한 실질적 논의를 이어갑니다.

9월 20일(토) 12:30~14:10	주제	기후 정의, 세대 간 정의: 행성 시민으로 가는 길	
	사회	박정원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교수
	패널	서재영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연구교수 및 선임연구원
		이우균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회장
		이명헌	과학 책방 갈다 대표
		신충식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부원장
		김현중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
		황주격	UNSA-ROK 회원

세계평화주간 행사

미원평화상 제정 기념 숏폼 공모전

2025/9/19(금) ~
2026/9/21(월)

경희학원 병설기관 경희여자중학교, 경희중학교, 경희여자고등학교, 경희고등학교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제2회 미래세대 디지털 숏폼(short-form) 공모전을 추진합니다. 경희 평화 운동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미원평화상 제정 의미를 미래세대의 시선으로 조명하는 행사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을 2026년 9월 21일 제2회 미원평화상 시상식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대상 경희여자중학교, 경희중학교, 경희여자고등학교, 경희고등학교
주관 경희학원 병설기관

시민사회·학생 기념행사

9/20(토)
08:30~11:30

세계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청년들과의 세대 간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장소 서울캠퍼스 오비스홀 111호
주제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지금 행동: 지구 열대화 시대에 평화를 재정의하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다
대상 시민사회·학생 참여
주관 유엔 세계평화의 날 한국조직위원회(KOCUN-IDP), 사단법인 평화 유엔한국학생협회(UNSA-ROK), 한국유네스코학생회(KUSA)
UNAI ASPIRE Kyung Hee, UNAI ASPIRE KOREA
협력 경희대학교

청년 평화포럼

9/20(토)
14:20~17:40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국내 대학생 및 관련 인사들을 초청하여 평화를 위한 실천 대안 및 의견을 개진하는 공론의 장을 개최합니다. UNAI ASPIRE(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Action by Students to Promote Innovation and Reform Through Education)는 대학생들의 학술적, 실천적 역량을 통하여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학술 교류 활동, 봉사활동, 캠페인 및 옹호 사업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UNAI ASPIRE Kyung Hee를 중심으로 매년 청년 평화 포럼을 통해 Peace BAR Festival의 핵심 주제를 발전시켜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소 서울캠퍼스 오비스홀 111호
주제 기후 정의, 세대 간 정의: 국가는 기후대응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대상 시민사회·학생 참여
주관 UNAI ASPIRE Kyung Hee, UNAI ASPIRE KOREA
유엔 세계평화의 날 한국조직위원회(KOCUN-IDP)
유엔한국학생협회(UNSA), 한국유네스코학생회(KUSA)

세계평화주간 행사

지구시민부스

9/16 화 ~ 17 수

10:00 ~ 16:00

‘행성 시민으로 가는 길’ 부스는 세계평화를 소망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참여형 축제의 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세계시민의식과 실천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전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참가자들은 세계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역할을 다시금 돌아보고, 행동하는 행성 시민으로서의 작은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번 부스에는 굿네이버스 서울북부지부, 미래희망기구, 메디피스, 원더스 인터내셔널, 경희대의료원·경희기독치과봉사단 CDSA·경희대학교 치과대학 56대 학생회 한결,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생위원회, UNAI ASPIRE Kyung Hee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함께합니다. 경희 구성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세계시민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그 가치를 널리 전파하며, 일상 속 실천으로 연결해 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체험의 공간을 넘어, 모두가 지구와 인류 공동체를 위한 ‘시민적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열린 장이 될 것입니다.

장소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마당

주제 행성 시민으로 가는 길

대상 경희 구성원, 일반시민

참여기관 대외 굿네이버스 서울북부지부(Good Neighbors)
미래희망기구(Hope to the Future Association)
메디피스(Medipeace), 원더스 인터내셔널(Wonders International)

교내 경희대학교의료원·경희기독치과봉사단 CDSA·경희대학교 치과대학
56대 학생회 한결,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
UNAI ASPIRE Kyung Hee

주관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대학교의료원 의과학문명원

세계평화의 날 기념 “제11회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 백일장

11/5 수

12:00 ~ 18:00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글쓰기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후마니타스 글쓰기 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학습자와 교수자가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글쓰기 공동체를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글쓰기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유하고 성찰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번 백일장은 ‘글쓰기’를 통해 평화와 인류,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나누는 자리이자, 후마니타스 정신을 바탕으로 경희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함께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 서울캠퍼스 오비스홀 111호

대상 경희 구성원, 일반시민

주관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글쓰기센터

**Peace BAR
시네마 주간과
바츨라프 하벨
다큐멘터리 상영회**

9/18^목~22^월

Peace BAR 시네마 주간은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행성적 위기, 공생적 평화를 찾아서'라는 주제를 영화와 대화를 통해 함께 성찰하는 자리이며, 하벨 다큐멘터리 상영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화를 매개로,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과 위기, 그리고 그 너머에 놓인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진실 속에서 살기'라는 도덕적 실천을 통해 희망의 정치를 만들었던 체코 벨벳 혁명의 주역 바츨라프 하벨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장소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교육관 1층 일대(후마라운지)

주제 행성적 위기, 공생적 평화를 찾아서

대상 경희 구성원, 일반시민

주관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주한체코문화원,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PBF 2025
경희 평화운동과
바츨라프 하벨 사진전**

9/17^수~19^금

경희가 전개해온 평화운동의 역사와 바츨라프 하벨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경희가 걸어온 평화운동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PBF 2025의 의미를 성찰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전시는 경희가 오랜 시간 실천해 온 '학문과 평화'의 가치와, 대학이 수행해 온 사회적 책임을 다시금 조명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경희 평화운동의 궤적과 함께, 체코의 벨벳혁명을 이끈 바츨라프 하벨이 남긴 '진실, 양심, 책임'이라는 평화정신의 흔적을 사진과 기록으로 되새기며, 오늘의 우리에게 평화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제·장소 **경희 평화운동 사진전** 서울캠퍼스 중앙로 교시탑~중앙도서관 입구

바츨라프 하벨 사진전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로비

대상 경희 구성원, 일반인

주관 경희기록관, 주한체코문화원,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세계평화주간 행사

디지털 데이터 클린업 캠페인 - 기후 위기,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9/8월 ~ 21일

우리가 무심코 쌓아두는 이메일, 파일, 사진, 클라우드 저장 데이터 등 디지털 데이터가 실질적인 에너지 자원과 탄소를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실천 운동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작은 행동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정리가 아니라, 지구 생명과 인류 평화로 이어지는 작은 실천입니다. 실천 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PBF 2025 행사 기간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장소	온라인
주제	기후 위기,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대상	경희구성원, 일반시민
주관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문명원
공모전	디지털 데이터 클린업에 관한 실천 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	4행시 짓기(탄소중립, 지구사랑, 일상실천 중 택 1)

UAP 시네마 콘서트 - 영화에서 만난, 우리 곁에 온 UAP

2025/9 ~
2026/9

UAP는 더 이상 단순히 외계 생명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세계, 받아들이지 못한 진실의 은유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존재들과의 조우를 통해 인간의 우주 행성적 상상, 두려움,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갈망을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계 생명체는 스크린을 넘어 현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공식 보고서, 조종사들의 생생한 증언, 반복적으로 공개되는 영상들이 모든 것이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UAP 시네마 콘서트는 영상과 음악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함께 묻고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금년 PBF 2025 부터 기획해서 UAP 시네마 콘서트는 내년에 개최됩니다.

주제	미지에서 온 손길: UAP와의 컨택
대상	경희구성원, 일반시민
주관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문명원
내용	영화 평론회 유지나 영화평론가 겸 동국대 교수 OST 공연 김선희 팝페라 가수 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연혁

경희학원은 1981년 유엔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에 발맞추어, 인류의 평화적 미래를 위한 사유와 실천을 확산하고자 198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Peace BAR* Festival(PBF)을 개최해 왔습니다.

PBF는 '평화(Peace), 인류(Humanity), 미래(Future)'라는 가치 지평 위에서, 문명 전환의 시대를 사유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지구시민의 공론장입니다.

경희는 PBF를 통해

- 평화를 단지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문명과 생명의 조화로운 전일적 관계로 재정의하고
- 학문과 예술, 정치와 과학의 경계를 넘어서 통합적 성찰을 촉진하며
-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삶의 패러다임을 모색합니다.

PBF는 단지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인류 의식의 행성적 전환을 위한 사유의 전위이자 평화 실천의 거점으로서 기능해 왔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경희의 염원이 바로 PBF의 시작이자 지속의 이유입니다.

1982~	1982	현대사회의 위기와 국제평화
	1983	세계평화: 그것은 가능한가
	1984	UN을 통한 세계평화
	1985	UN: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986	국제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 모색
	1987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1980년대 후반의 한반도
	1988	동북아 시대와 21세기의 한국, 중국, 일본의 역할
	1989	동서 갈등을 넘어선 평화: 1990년대 동북아의 안위와 세계평화
	1990	동서 관계의 변화와 평화로운 신국제질서의 모색

* BAR은 spiritually **B**eautiful, materially **A**ffluent, humanly **R**ewarding의 약어

1991~

- 1991 신국제질서: 21세기 탈이데올로기의 세계
- 1992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신국제질서
- 1993 동북아시아의 평화: 지역협력을 향하여
- 1994 도덕과 인간성 회복
- 1995 관용, 도덕과 인간성 회복
- 1996 21세기, 세계공동체를 향한 평화전략과 UN의 역할
- 1997 21세기의 비전과 현실: 동아시아의 역할
- 1998 새로운 천년을 향한 인류의 비전: 현대문명을 넘어서
- 1999 21세기, 평화는 가능한가
- 2000 21세기의 글로벌 거버넌스

2001~

- 2001 문명 간 대화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 2002 Pax UN을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 2003 네오르네상스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 2004 평화를 위한 긴급 과제: 테러리즘의 극복
- 2005 이념 이후의 시대: 21세기 대안문명을 말한다
- 2006 21세기 보편의 재발견: 자유와 평등을 넘어서
- 2007 전환적 도전: 새로운 인성과 공동체를 찾아서
- 2008 미래문명, 미래대학: 지식과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 2009 경희 평화 워크숍
- 2010 몸과 문명: 나는 몸이다

2011~

- 2011 몸과 재앙: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 2012 인간, 정치, 문명
- 2013 문명과 고등교육: 큰 배움을 찾아서
- 2014 우주의 인간, 인간의 공적 실천
- 2015 함께할 우리의 가치, 그 가능성의 미래
- 2016 지구문명의 미래: 실존혁명을 향하여
- 2017 전환의 시대: 촛불과 평화의 미래
- 2018 전환문명 시대의 한반도: 그 가치와 철학
- 2019 미래세대에게 미래는 있는가?
- 2020 긴급성의 시대, 정치 규범의 새 지평

2021~

- 2021 전환 문명의 전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 2022 평화 혹은 붕괴, 지구정치의 새 지평을 찾아서
- 2023 평화 혹은 붕괴, 변곡점에 선 지구사회
- 2024 인류의 미래, 지구 행성의 미래 - 희망의 활로를 찾아서
- 2025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경희학원

미원평화학술원,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대학교의료원 의과학문명원